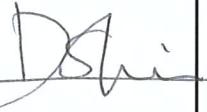


		담당	의장
회 의 록			
회 의 명 제13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일 시	2017. 4. 21(금) 15:00	장 소	600주년기념관 3층 제3회의실
참석위원	신동렬, 현선해, 김윤제, 김도현, 원유빈, 오훈영 평의원 참석 / 이희옥, 오하영, 박성수, 송인만 평의원 위임장 제출 (이상 총 10명) ※ 송성진 기획조정처장, 황윤만 재무팀장, 유동석 과장 배석		
불참위원	장연철		

1. 개 회

- 신동렬 대학평의원회 의장(이하 의장)이 위임장을 제출한 평의원을 포함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한 후 제13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하다.
- 이어 김홍덕 과장이 전차 회의록을 불임의 자료와 같이 위원들에게 낭독하다. 의장이 전체 평의원의 수정 의견 제시 여부를 확인한 후 회의록을 원안대로 확정하다.

2. 2016학년도 결산(안) 자문

- 다음 안건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의장이 2016학년도 결산(안)에 대한 안건 설명을 황윤만 재무팀장(이하 팀장)에게 의뢰하다. 이에 팀장이 불임의 자료와 같이 안건 설명을 진행하다.
- 김도현 평의원이 예산 편성액 대비 결산액이 164억 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다. 이에 팀장이 기부금 확보실적이 당초 목표에 미달된 점, 등록금 수입 감소, 기숙사 수입 감소, 건축기금의 미인출 등으로 인해 전체적인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다.
- 오훈영 평의원이 학생경비가 예산 대비 98억 원 감소한 내역에 대해 질의하다. 이에 대해 유동석 과장(이하 과장)이 교외장학금이 당초 예산 편성 시점에 비해 감소한 점, 기숙사 수입 감소에 따른 기숙사 운영비 지출 감소, 일반학생지원비 증차년도 이월금 발생 등의 내역을 설명하고, 실집행액은 전년 대비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하다.
- 김윤제 평의원이 대학내 반드시 필요한 정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는지 질의하다. 이에 송성진 기조처장(이하 처장)이 이제까지는 그러한 경우가 없었다고 답변하다. 그러나 안건 자료에 적시되어 있듯이 등록금 수입이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감소한 경우는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김윤제 평의원이 지적하신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말하다. 덧붙여 현재는 지방의 군소대학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주요 대규모 대학들도 재정적인 어

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적립된 기금을 인출하여 대학 운영에 충당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하고, 마치 항공기로 비유하면 스톤 포인트에 현재의 대학 사회가 당면해 있다고 강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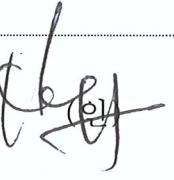
- 김도현 평의원이 정부재정지원사업의 개편과 관련하여 향후 대학 자율 운영의 폭이 확대될 수 있는 전망에 대해 질의하다. 이에 처장이 교육부의 현재 계획은 2019년부터 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하여 Block Funding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방향이라고 답변하다. 관련하여 혼선해 평의원이 장기적으로 볼 때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사업의 규모는 상당 부분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첨언하다.
- 의장이 우리 대학의 경우 각종 사업 및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생들의 해외 수학 경험 기회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데, 실제로 신청하는 학생수가 T/O의 절반 정도 밖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대학이 제공하는 기회를 학생들이 최대한 활용할 것을 당부하다.
- 오후영 평의원이 자과캠 학생들의 경우 인사캠 학생들과는 달리 교환학생을 신청하거나 해외 수학 경험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드물고, 주로 학업, 군휴학, 복학, 인턴 및 취업 등의 순으로 대학생활을 마감하는 문화적 분위기라고 설명하고, 양 캠퍼스 학생들간 분위기와 상호 교류가 단절되어 있는 것이 그 한 가지 원인이라고 역설하다.
- 원유빈 평의원이 교환학생 신청자수에 비해 이를 전체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국제처 담당 직원의 수는 한 명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충분한 지원이 어렵다고 말하고, 학내 여러 제도의 개선을 위해 학교와 학생회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다.
- 김도현 평의원이 대학 재정 여건이 점차 어려워지는 시점에서 우리 대학이 더욱 도약하기 위해서는 재단의 지원과 투자가 절실함을 역설하다. 이에 처장이 그간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재단의 지원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음을 재확인하고 다만 현재의 상황이 재단 내부에서도 질서의 재편이 진행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어려움과 혼란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체제가 정비될 것이라고 말하다.
- 이상과 같이 논의하고 의장이 평의원 전체의 동의를 얻어 2016년 결산(안) 자문을 종료하다.

3. 2017학년도 학생평의원 신규 위촉 보고

- 의장이 붙임의 자료와 같이 2017학년도 신규 위촉된 학생평의원을 소개하고 총장을 대신하여 위촉장을 수여하다.
- 김홍덕 과장이 교원평의원, 직원평의원, 동문 및 외부인사 평의원의 임기가 각 2년이고, 학생평의원 임기는 1년임을 추가로 설명하다.
- 원유빈 평의원이 학생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학생평의원 임기 개시 시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이에 김홍덕 과장이 필요한 시점에 의원면직을 통해 임기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다.

- 이상과 같이 논의하고 의장이 16:00에 폐회를 선언하다.

붙임 제13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자료 1부. 끝.

신동렬		현선해		이희옥	<위임>
김윤제		오하영		<위임>	
박성수	<위임>	김도현			
원유빈		오훈영			
송인만	<위임>	장연철	(인)		

대학평의원회 위임장

- 성명 : 이희옥
- 소속 :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 직위 : 교수평의원

상기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2017년 4월 21일에 예정된 성균관대학교 제13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바, 대학평의원으로서 동 회의에 관한 본인의 권한을 대학평의원회 의장께 위임합니다.

2017. 4. 18.

성명 : 이희옥


대학평의원회 의장 귀하

대학평의원회 위임장

- 성명 : 오하영
- 소속 : 의과대학 의학과
- 직위 : 교수평의원

상기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2017년 4월 21일에 예정된 성균관대학교 제13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바, 대학평의원으로서 동 회의에 관한 본인의 권한을 대학평의원회 의장께 위임합니다.

2017. 4. 5.

성명 : 오하영 (인)

대학평의원회 의장 귀하

대학평의원회 위임장

- 성명 : 박성수
- 소속 : 총무처장
- 직위 : 직원평의원

상기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2017년 4월 21일에 예정된 성균관대학교 제13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바, 대학평의원으로서 동 회의에 관한 본인의 권한을 대학평의원회 의장께 위임합니다.

2017. 4. 19.

성명 : 박성수

대학평의원회 의장 귀하

대학평의원회 위임장

- 성명 : 송인만
- 소속 :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 직위 : 동문 및 외부인사 평의원

상기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2017년 4월 21일에 예정된 성균관대학교 제13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바, 대학평의원으로서 동 회의에 관한 본인의 권한을 대학평의원회 의장께 위임합니다.

2017. 4. 5.

성명 : 송인만

대학평의원회 의장 귀하